

## 1. UCC의 사전 제작 과정

디지털 영상(UCC)의 전체 제작 단계는 크게 기획, 촬영, 후반 작업 과정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획단계는 사전 제작 과정이라고도 하며, 촬영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촬영 및 편집이 이루어진다.

### 1) 기획 단계

개인이 만드는 디지털 영상(UCC)이라 하더라도 기획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와 내용은 일반적인 영상 제작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생략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디지털 영상(UCC) 기획을 할 때에는 주제와 소재를 선정 할 때 무엇을 찍을 것인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확실한 주제가 있어야 한다. 개인적인 일상 생활을 주제로 선정해도 좋다. 생일, 졸업식, 결혼식 같은 특별한 이야기를 주제로 할 경우는 정확한 주제를 따로 잡을 필요가 없다. 주제와 소재의 선정이 끝나면 그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주제가 정해졌으면 스태프 구성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차례이다. 필요한 부분에 따라 기획, 촬영 등 인원을 구성한다. 개인이 혼자 촬영할 때에는 이 과정이 생략되기도 한다.

다음은 제작 형태를 결정한다. 동일한 소재로도 제작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분야에 따라서 영상을 풀어내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방법에 대한 것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시청 대상의 결정이다. 연령층과 지식 수준 등에 따라 목표 집단과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청 대상을 정했다면 자료 수집과 사전조사를 할 차례이다. 영상 작품에 대한 아웃라인이 결정되었다면 그 기획 의도에 맞는 자료를 모아야 한다. 캠코더가 아니더라도 핸드폰의 동영상 기능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찍어보는 등 미리 현지조사를 한다. 이 때 사전 인터뷰를 통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영상 촬영 및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이 정해졌다면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 디지털 영상(UCC)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과 스태프들의 식사 비용, 장소 이동 비용 등을 고려하여 예산 기획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정한 사항들과, 조사한 것을 토대로 기획서를 작성한다. 기획서의 내용에는 만들어지는 목적, 즉 기획의도가 들어가야 하며 테마(주제)와 내용(작품의 개요)를 적는다. 다큐멘터리인지 리포트를 포함한 뉴스형식인지, 혹은 기행형식인지 작품의 형식도 적는다. 제작된 영상에 대한 반응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예상도 적는다. 작품 규모와 예산에 대한 것도 적어야 한다.

### 2) 내용 구성 단계

이전 챕터에서 기획 단계를 마쳤다면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번 챕터에서는 디지털 영상(UCC)의 내용 구성 및 준비하는 과정을 알아볼 것이다. 먼저, 주제와 소재에 걸맞는 정확한 촬영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대본과 시나리오는 기획서를 기본으로 만든다. 기획의도에 따라서 어떤 스토리로 영상을 진행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취재 대상의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사전에 진행 대본을 만들지 않는 방법은 촬영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대본을 쓰던지 아니면 촬영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비디오 소재를 재생하고 그것을 보면서 작성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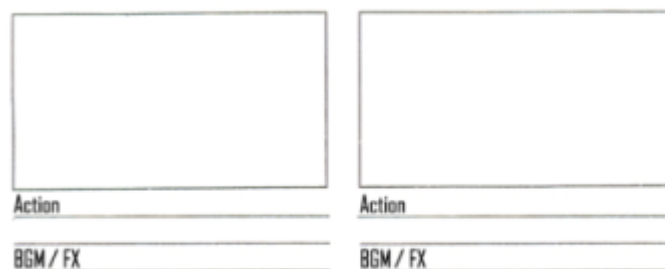
대본을 구성할 때에는 비디오 부분과 오디오 부분을 나누어서 작성한다. 비디오 부분에서는 프로그램 제작의 모든 것, 즉 등장인물 화면의 크기와 장면의 길이,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와 촬영방법 등을 기록한다. 오디오 부분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해설, 배경음악, 효과음 등을 기록한다.

카메라 워크란 샷 안에서의 카메라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제에 맞춰 지정해 놓아야 같은 촬영 분을 두 사람 이상이 촬영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콘티는 대본의 이미지를 실제로 영상을 촬영할 때에 어떻게 찍으면 좋은가를 그린 스토리보드라 할 수 있다. 문장으로 표현된 대본의 이미지를 구체적인 영상으로 바꾸는 작업이기도 하다. 스토리보드는 대본이나 시나리오의 내용을 그림, 영상으로 자세한 내용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그림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대본 등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카메라 워크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콘티와 스토리보드는 대본의 문장만 읽어서는 그 나타내는 영상이 사람에게 따라서 앵글과 사이즈, 구도, 컷 분할 등이 다르게 되고, 콘티와 스토리보드를 엉망으로 제작하면 후에 촬영에서 문제가 생긴다. 또, 콘티와 스토리보드를 통해 각 컷을 그림으로 나열해 보는 것으로 촬영의 순서와 흐름이 파악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작에 도움이 된다. 콘티 작업을 충실히 하면 촬영에서 의도한 만큼 완벽한 장면을 얻을 수 있다. 콘티와 스토리보드를 잘 만들어 두면 후반 작업의 편집 시간을 줄여 효율적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 스토리보드의 예제



-그림 2-1. 스토리보드의 예-

위 그림의 네모 공간의 안에 해당 샷의 이미지를 카메라 워크 등과 함께 상세히 그려 넣고 밑에 글로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작성하여 적어 넣는다. 배경에 넣을 사운드(BGM)나 효과음(FX) 등도 같이 작성한다.

음악과 나레이션은 디지털 영상(UCC)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필요 요소 중 하나이다. 기획하여 만든 디지털 영상(UCC)에 어떤 음악이 어울릴지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샘플 음악이 있다면 미리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다. 영상 주제가 다큐멘터리 형식이라면 나레이션을 넣을 것인지 고려하여 결정한다.

### 3) 촬영 준비 단계

촬영에 앞서 미리 스케줄을 정리하고 장비들을 찾아 정리하는 촬영 준비 단계를 통해 영상 제작 시간 단축과 더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촬영 스케줄을 작성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효과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인물과 장소에 대해 어떤 출연자를 캐스팅 할 것인지, 출연자의 스케줄을 고려하고, 장면의 시간대가 밤인지, 낮인지도 세심하게 살펴 촬영 스케줄을 정해야 한다. 조명이 필요한지, 조명에 필요한 전원을 확보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촬영 일정은 촬영 날 촬영 장소의 예상 날씨까지 체크해야 한다. 촬영일이 공휴일인지, 또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지도 살펴야, 하며 촬영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과 다음 장면과의 이동 거리와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연자들과 스태프들의 식사 시간 역시 고려해야 한다.

촬영 장소에 따라 사전에 촬영 허가가 필요한지,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미리 허가를 받아 두어야 한다. 또 촬영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촬영 장비도 준비해야 한다. 본격적인 촬영 전에 필요한 장비들도 미리 준비 하고 이상이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촬영 기본 장비로 캠코더를 사용할 것인지, 핸드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할 것인가 정해두는 것이 좋다. 주변 기기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영상(UCC)를 편집할 컴퓨터가 있어야 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 역시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편집할 것인지도 정하여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핸드폰 동영상 기능을 사용한다면 컴퓨터와 핸드폰을 연결할 USB 연결 케이블이 준비되어 있는지, 연결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캠코더를 사용한다면 캠코더의 종류와 그에 맞는 케이블, 컴퓨터 안에 캠코더 영상을 이식할 수 있는 IEEE1394 카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4) 사전 제작 과정의 중요성

사전 제작 과정은 영상을 만들기 전 제작을 위한 기획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촬영, 편집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사전 제작 과정이 충실히 수행되어야 촬영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좋은 기획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듯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치밀하고 꼼꼼해야 기획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제작은 기획, 내용 구성, 준비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기획에는 제작 목적과 주제를 선정하고 시청 대상, 아이디어를 정한다. 사전 조사와 예산수립, 스태프 구성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내용 구성에는 스토리보드·콘티를 작성하고 시나리오 혹은 대본을 만든다. 촬영 대상을 정하고 카메라 워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상효과와 음악, 나레이션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를 정한다. 준비단계는 촬영할 현지를 답사하고, 출연자를 캐스팅한다. 촬영 세트를 제작하고 소품을 준비한 뒤 촬영 스케줄을 정한다.

#### 5) 사전 제작 과정 시 유의사항

사전 제작 단계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전 작업의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사전 제작 과정은 지루하고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고, 정보가 부족하여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이 디지털 영상(UCC)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둘째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촬영단계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촬영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사전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스텝들 간에 충분한 회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파트별로 충분한 대화와 의견이 오고 가야 촬영할 때에도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다. 사전 제작 단계부터 유대감과 친밀감을 돈독히 함으로써 공동 작업을 훨씬 좋은 분위기에서 해나갈 수 있다

그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왜 이 작품을 만드는지, 주제에 적합한 이야깃거리가 있는지, 주제가 감정상의 친밀감이나 감동을 일으킬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주제에서 특이하고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지 또 그 특징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주제가 과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제작자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고히 하고 제작에 임하는 것이 좋다.

## 2. UCC의 촬영과 편집

### 1) 촬영 단계

시나리오, 콘티(스토리보드)가 나오고 촬영 준비가 끝났다면 촬영하고 제작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촬영은 연출자와 카메라맨의 호흡이 중요한 작업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획 및 내용구성 단계에서 기획한 스토리보드 및 콘티를 참고하며 스텝들과 출연진(Cast)들이 촬영에 들어간다. 정해진 분량의 촬영을 위해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진행해 나간다. 영상 촬영 전에 기획한 대로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출연진들의 상태(의상과 화장, 컨디션 등)를 체크하고, 배경 장소의 상태도 원하는 조건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살핀다. 미리 카메라 테스트를 통해 화면에 어떻게 비추는지 확인하고 촬영에 임한다면 보다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전에 기획한 콘티대로 소품의 위치와 카메라의 위치, 출연자의 동선 등을 생각하며 촬영한다. 기획 단계에서 순차적, 공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씬(Scene)의 촬영은 가급적 같은 날에 한꺼번에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스케줄을 작성하였을 것이다.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씬은 출연진의 상태나 계절, 시간 등의 상태가 같아야 하기 때문이고,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씬은 여러번 왕복하여 찍는 것 보다 한번에 찍는 것이 촬영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촬영분량은 정해진 분량보다 조금씩 더 찍어두는 것이 좋다. 편집 과정에서 남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모자란 부분을 다시 찍어야 하는 것 보다 편하기 때문이다.

### 2) 후반 작업 과정

후반 작업에는 영상편집, Title 제작, 자막 삽입, MA녹음이 있다.

영상편집 작업에서는 Off-line편집(가편집)을 거쳐 On-line(본편집)을 한다.

영상배열에 따라 이야기의 주제에 대한 감동과 호소력이 달라지므로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Title제작 역시 시청자의 첫 시선을 잡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작품의 분위기에 맞는 서체와 색을 써야 한다. 나레이션, 이름, 인터뷰 등 필요한 곳에 자막을 삽입하는 작업과 효과음, 나레이션, 배경음악을 최종적으로 합성하는 MA녹음 단계도 후반 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진다.